

재미 국제 장기 분거가족 전업주부의 일상적 삶과 정체성 유지에 관한 연구 :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A Qualitative Study on the Life Experience and Identity Maintenance of the Full-Time Housewives of the Korean Wild Geese Family in U.S.A

광주대학교 가족복지학과
교 수 김 선 미**

Dept. of Family welfare, Gwangju University
Professor : Kim, Seonmi

〈 목 차 〉

- | | |
|-----------------|------------------|
| I. 서론 | III.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
| 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 IV. 결론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ethnography is to describe and analyze the process of becoming a wild geese mother. Thirteen mothers from New York, California, and Texas of U.S.A. were interviewed with an unstructured questionnaire. There are several different patterns of the process; ‘the short term’, ‘re-departure after returning to Korea’, ‘a step to initiate their family’s immigration’, ‘sudden and unintentional’. In the first stage of the family living rearrangement, the main issues are about the wider free world, proper time for leaving and proper period for staying, where to live and my husband’s independent living. The wild geese mothers perform the concrete tasks about the everyday living for the new mother-child family in the foreign country. They report their subjective interpretation for their new life.

Key Words : 기러기엄마(wild geese mother), 자녀교육(child education)

* 이 논문은 2007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7-013-C00045)

** 주저자, 교신저자 : 김선미 (yupy1005@hanmail.net)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이 연구는 미국에 사는 ‘기러기엄마’에 초점을 둔 질적 연구이다. 관찰과 질문의 대상이 어머니들이며, 어머니들의 삶 자체이다. 자녀교육이 최우선인 가족에서 자녀교육의 일선에 선 엄마들의 삶의 과정을 분석하고, 당사자들의 해석을 반영해 내는 것이 이 연구의 목표이다.

단기간에 산업화를 거쳐 후기 산업사회로 진입하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개연성 있는 복수의 정체성이라는 다양한 선택지 가운데에서 ‘개인의 정체성을 성찰적으로 기획해야 정신적 고투’(기든스의 용어 2001:17-24)를 해야 한다. 전업주부도 그로부터 예외가 아니며, 연구자는 자녀조기유학을 위해 해외로 떠나는 전업주부의 선택을 이와 같은 고투로 본다.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은 소위 “발전의 와중에 있는 개인의 중심적 특질과 사회적 맥락간의 긴장과 균형의 역동적 성격”을 규명하려고 하였다(Bosma et al., 1994:163-164). 한국 중산층 전업주부는 사적인 가정에 속해 있지만, 세계화라는 변화의 와중에서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으면서(조은, 2006) 자신의 중심적 특질과 사회적 맥락간의 긴장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기러기가족의 증가는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 가운데에서 변화하는 한국사회의 교육문제, 가족문제 그리고 여성문제의 복합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의 행위성을 중시하는 질적 연구의 논리를 따라 본다면, 이러한 다양한 문제 가운데에서 주체적으

로 삶을 선택해 가는 개인의 경험과 해석을 연구자는 그 무엇보다 우위에 놓아야 할 것이다. 연구자의 관심은 직업적 지위가 중요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떤 확고한 직업적 지위도 가지 못하는 전업주부가 세계화의 맥락에서 찾아낸 기러기엄마라는 대안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이 연구는 미국 현지에서 수행하였다. 영어가 하나의 자본이 되는 우리나라에서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과 같은 영어권 국가가 조기유학 국가로 주로 선택되고 있으나, 조은(2004)이 간과하였듯이 ‘세계자본주의 중심국에서의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선택하는 나라’로는 역시 미국이 최우선이다. 다른 나라는 학비의 저렴, 조기유학에 부수되는 다른 조건의 간편함 때문에 선택하는 대체 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전업주부의 한 하위범주로서 재미 모자 가족을 이끄는 전업주부의 삶에 대한 연구 또는 전업주부로서의 삶의 대안 가운데 하나에 대한 연구가 되며, 다변화하는 한국 가족의 한 형태로서 국제 장기 분거가족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의 관건으로서의 가족연구에 실마리도 제공할 수 있다.

2. 연구내용

이 연구가 기존의 여러 연구 흐름 가운데 가지는 위치와 의의를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그 후에 연구문제를 제기하여 이 연구의 내용과 범위를 제시하려고 한다.

먼저, 자녀의 조기유학을 위해 어머니가 동행하는 가족 혹은 그 부모에 대하여 연구자별

1) 다변화하고 있는 한국가족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국제가족이 나타나고 있다. 농촌 혹은 도시의 하층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민 여성이 포함된 국제결혼 가족과 자녀 조기유학을 위해 대양을 사이에 두고 영어권국가와 한국으로 가족이 이분된 장기 분거가족이 있다(조은, 2006)

로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김성숙(2006)과 최양숙(2005)의 기러기아빠 연구에서는 속칭 '기러기가족'2) '기러기아빠'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김영희·최명선·이지향(2005)의 연구는 '기러기어머니'를 사용하고 있으며, 엄명용(2002)과 김양희·장은정(2004)은 '기러기엄마', '기러기아빠'를 그대로 사용하되 가족의 명칭은 '장기 분거가족'으로 부르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 가족의 특수성과 세계체제하 한국사회가 처한 불안정성이 만나는 지점으로 이 특수한 가족형태를 파악한 조은(2004)은 '신 글로벌 초국적 가족'3)으로 부르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제장기 분거가족이라는 용어 혹은 기러기가족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하겠으나 이는 잠정적이며, 당사자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부르며 일반적인 호칭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도 드러날 것이다.

이와 같은 기러기가족, 장기 분거가족, 혹은 신 글로벌 초국적 가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많은 연구가 조기유학 그 자체에 초점을 두고 있다. 조기유학생의 적응지도(한준상외, 2002), 조기유학의 현황과 과제(미국 북가주 경우에 대한 안병철의 연구, 1996, 뉴질랜드 조기 유학현장에 대한 전현옥의 글, 2003)가 그러한 부류이다. 2006년에는 교육수지적자문제에서 출발하여 그리고 한국 내 공교육불신문제의 한 표현으로서의 조기유학을 잠재우고자, 교육인적자원부가 발주한 공모과제(조삼섭외 수행, 2006)가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사례를 조사하고 학부모계도를 위한 홍보방안을 내놓았다.

둘째, 국내 기러기아빠의 생활상에 대한 연구가 몇 편 있는데, 국내에서 상대적으로 연구가 용이하리라 생각되지만 의외로 많지 않고 연구가 초기상태라고 할 수 있다. 기러기가족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유포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귀결이 언론화 되면서 기러기아빠들의 사이버동호회에서는 일체의 인터뷰를 거절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희소한 초기 단계의 연구들을 통하여 기러기아빠가 거치는 적응의 단계 경험하는 문제들 극복방안 등이 규명되어 가고 있다. 김성숙(2006)은 기러기아빠를 자기관리유형, 방황유형, 향유유형으로 유형을 나누었는데, 적응과정은 최양숙(2005)이 당황, 방황, 인내, 수용의 단계로 그리고 김성숙은 고통, 수용, 포기, 인내 혹은 즐거움의 단계로 서로 유사하게 파악하고 있다.

기러기아빠 연구에서는 기러기아빠가 직면하는 문제로 가족관계에서의 상실감, 혼자 사는 외로움, 경제적 압박이 드러났고, 기러기아빠들은 대체로 생활이 힘들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엄명용의 경우(2002) 기러기아빠들이 분거이후 나빠진 점-성문제와 건강문제-과 좋아진 점-일에 대한 몰두-을 각각 따져보고 지원방안을 논하고 있으며, 김양희·장은정(2004)은 기러기아빠가 된 동기로 '뒤틀린 삶을 잘 해주지 못한 부모세대에 대한 일종의 반동'이라는 특성을 발견해 냈고, 그들의 내면의 세계와 주변과의 관계, 성문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또한 가족과의 관계유지방식으로 첫째, 남편 아내관계의 재해석을 들고 있으며-이는 떨어져서 비로소 소중하고 애틀

2) 기러기가족 wild geese family 은 2005년 1월 9일자 워싱턴포스트지가 '대양을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사는 남한의 가족' South Korea Families Separated by an Ocean 이라고 정의하였다.

3) 신 글로벌 초국적 가족은 미혼여성이나 생계책임자인 남편이 잘 사는 나라에 돈벌이 하러 가던 초국적 가족과 달리 기혼여성이 돈을 벌러 나가거나 남성이 본국에 남아 돈을 버는 새로운 양태(Parrenas, 2001, Piper and Roces, 2003, 조은, 2004:149에서 재인용)를 말한다. 이러한 초국적 가족은 급속히 그리고 다양한 양태로 확산중이라고 한다.

한 관계 그리고 폭넓어진 대화 깊어진 이해로 표현- 둘째, 경제적 부양이라는 도구적 측면을 통해 강화되는 아버지의 의미를 보여주었다.

혹자는 기러기아빠를 신(新)고려장으로 묘사하기도 하는데, 자녀교육을 위해 동의했건,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못 다 이룬 꿈을 자식을 통해 대리성취하기 위해 시도했건 이와 같은 삶의 방식이 기러기아빠에도 최선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이 연구의 주제와도 통하는 새로운 연구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러기엄마에 관한 연구는 아직 희소하다. 기러기아빠나 해외거주 조기유학생에 관한 연구가 면접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행한 것과 달리, 질문지를 활용한 양적 연구를 수행하여 66명을 대상으로 한 김영희 외(2005)의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어머니의 생활실태 연구에서는 거주기간과 이주동기, 자녀유학에 대한 생각 한국 남편과의 연락 현저에서의 인간관계 여가활동 및 현지적응상황을 파악하여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는 자녀 연령으로 보아 어느 시기에 유학을 왔느냐의 결과를 놓고 한국형어머니와 서구화된 자녀사이의 갈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며, 사후적으로 조기유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현지적응을 위해 자녀와 어머니에게 부족한 것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이 연구는 남편과의 연락이나 현지 네트워크의 제한점도 지적하고 있는데, 양적 연구의 한계로 인하여 그 깊은 원인까지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조은(2004)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기러기가족에 대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기러기가족이 된 배경과 동기를 중심으로 다섯 가지 형태4)

로 분류하였으나 연구대상자들 사이에 가족생활과 사회경제적 위치는 서로 매우 유사하다고 파악하였다. 조은(2004)은 기러기가족의 조건을 ‘돈 있는 아빠와 영어되는 엄마’로, 그리고 ‘자식중심의 부부’로 규명하고, 이들 가족의 ‘자녀교육열과 사회이동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욕망과 불안한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라는 도구적 가족주의의 양면성’을 분석해 내고 있다. 조은의 연구는 세 차례에 걸친 사례 깊은 현장연구인데, 개별 가족을 하나의 단위로 삼아 연구를 하되, 기러기엄마 즉 전업주부는 가족에 대한 제보자로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경험이 당사자에게 주는 의미는 분석하지 않았다.

이 연구는 기러기엄마 삶의 과정과 일상성에 대한 생애사적 접근의 일부이다. 기러기엄마 삶에 대한 전체 연구는 시간흐름으로 볼 때 1. 기러기엄마 되기 2. 기러기엄마로 살기 3. 기러기엄마 이후 삶에 대한 전망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먼저 기러기엄마 되기를 다루려고 한다. 따라서 기러기엄마 되기 부분을 다루는 이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둘째,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들에게 주요한 관심거리로 부상한 주제들은 무엇인가?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기러기엄마들은 무엇을 체험하는가?

이러한 물음들이 문화기술지접근을 통해 규명될 것이다. 연구자가 문화적 체계나 사회적 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기술하고자 하며 집단의 역사 종교 정치 경제 환경까지 포함하는 것을 총체적이라고 할 때(Creswell 저, 조홍식외 역, 2005), 현재 미국에서 조기

4) 첫째, 미국거주 경험이 없는 부부이지만 엄마가 대학입학 허가받을 수 있고, 남편은 경제력이 있는 경우, 둘째, 미국 거주 경험 있는 부부로 남편은 귀국 부인과 자녀 잔류, 셋째, 미국에 거래처를 둔 남편의 아내와 자녀들 넷째, 기숙학교로 간 자녀를 방문했다가 눌러앉은 엄마 다섯째, 부인이 미국 영주권을 가지거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유학생을 기르는 어머니들의 일상적 삶의 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는 바로 이 총체성을 반영하게 될 것이다. 기러기엄마가 된 과정과 기러기엄마들의 체험은 주로 記述에 초점을 둘 것이며,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부당한 주제는 자료의 分析을 통해 빈번하게 드러나는 중요한 공통 화제를 추출할 것이다.

II.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

1. 연구방법과 절차

연구방법은 심층면접에 의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자는 2007년 2월부터 2007년 11월 현재까지 미국 텍사스 주 어스틴에 거주하고 있다. 어스틴에서는 제보자들을 참어관찰하고 최소한 2차례 심층면접하였다. 한 편 미국의 중소도시라는 이 도시의 특수성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한국의 기러기엄마들이 실제로 많이 모여 살거나, 적어도 바람직하게 여겨 회귀하고 있는 지역을 포함하기로 하고 캘리포니아 지역과 뉴욕지역을 선택하였다. 자료는 2007년 3월부터 11월까지 텍사스주 어스틴에서 네 사례, 캘리포니아 주 플러튼과 애너하임에서 두 사례 그리고 팔로스버디스에서 두 사례, 그리고 뉴욕 주의 롱아일랜드에서 다섯 사례를 심층 면접하였다.

심층면접은 연구자의 판단중지(epoche)를 기초로 하여 최대한 비구조적 질문을 던져 제보자의 경험 그리고 그에 대한 해석의 폭을 최대한 넓게 포괄하고자 하였으며, 제보자와 자녀의 나이와 성별 거주기간 결혼년도 등 자

료의 해석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만 간략한 질문지로 수집하였다. 면접은 Spradley(이희봉 역, 1996:37-53)의 발전식 연구 사이클에 따라 대강의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시작하고 「자료수집 및 기록→자료 분석과 보고서 작성→이 보고서를 토대로 다음의 면접 과제를 선정」하는 사이클을 반복하였다. 이 논문을 위해 던진 질문은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되셨나요?” “여기까지 오시게 된 모든 과정을 물 흐르듯이 저에게 이야기해주실래요?”라는 질문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어스틴의 김노마 씨 면접을 시작으로 녹취자료를 전사하고 분석한 후 다음 면접은 앞 자료에서 나온 중요한 이야기가 다음 자료에도 포함되도록 질문을 던지되 이야기의 흐름을 중지시키지 않도록 크게 조심하였다.

심층면접순서는 어스틴의 김노마 씨 그리고 뉴욕의 유연선 씨 그 다음 다시 어스틴의 김노마 씨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유니스 씨 순서로 진행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나머지 세 명을 차례로 면접하였으며 어스틴으로 돌아와 천수지 씨와 김진 씨 그리고 김희남 씨를 면접하였다. 다시 뉴욕에서 유연선 씨를 참어관찰하면서 2차 면접을 했으며 나머지 네 명을 차례로 면접하였다. 오현미 씨는 예정된 제보자가 아니었으나 이순선 씨가 함께 동반하여 자료를 수집한 경우이다.

제보자들은 기러기엄마자신에 초점이 가 있는 연구라는 취지 설명에 더욱 관심을 보여 주었고, 연구자도 세 자녀를 데리고 기러기엄마 생활을 체험 중이므로 보다 친근하게 느끼는 듯 했다. 면접시간은 자녀들을 태워다주는

5) 나선형과정으로 진화된 면접의 질문은 결국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I.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 ; 성장과정과 꿈과 현실, 결혼과정과 일과 가족, 자녀교육, 도미결정과정/정착과정, 시댁과의 관계 II. 여기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 경제적 여건(소비와 지출), 신분의 유지, 일상생활의 시간구조, 만나는 사람들, 일반적 어려움/ 특수한 어려움,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키고 있는가, 아이들과 관계(갈등, 그들의 어려움, 바라는 것), 남편과의 관계 III.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귀국여부, 향후 자녀와/남편과 자신과의 관계

시간과 기러기엄마들이 어학원에 다녀오는 시간을 피해 잡아야 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의 면접은 유연선 씨를 제외하고 모두 1차 면접으로 제한되었다. 따라서 최대한 자료를 얻도록 충분한 시간과 포괄적 질문을 다루려고 노력하였고, 부족한 자료에 대해서는 이메일과 전화로 면접하기로 약속하였다. 일단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 관한 분석은 일차면접 자료로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면접 자료는 수집 즉시 전사하고, 연구자는 면접당시 기록한 연구노트를 활용하여 간략한 스케치를 작성하고 연구에 대한 시사점들을 정리하였다. 전사한 자료는 분석하여 다음 면접에 적용하였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로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유니스 씨와 고가영 씨 그리고 오효영 씨와 김순영 씨를 면접하였다. 그리고 텍사스 주에서는 김진 씨와 김희남 씨 김노마 씨와 천수지 씨를 면접하였으며, 뉴욕 주에서는 유연선 씨와 임재인 씨, 신수정 씨와 이순선 씨 그리고 오현미 씨를 면접하였다.

연구대상자는 김노마 씨를 제외하고 모두 40대이며, 신분은 학생 비자, 취업 비자, 사업 비자, 방문 학자 비자 그리고 영주권 소유로 다양하게 유지하고 있다. 자녀들은 5세 유치원생부터 18세 12학년까지 포함되어 있다. 자녀를 한 명 둔 경우가 세 사례(고가영, 김진, 신수정) 그리고 두 명 둔 경우가 여덟 사례(김순영, 김희남, 오효영, 김노마, 유연선, 임재인, 이순선, 오현미), 세 명 둔 경우가 두 사례(천수지, 유니스)이다. 전체 성별은 아들이 아홉 딸이 열다섯 명 포함되었으나, 오현미 씨의 첫째 딸은 한국에서 대학 4학년에 재학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의 각 두 사례는 타운하

우스를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아홉 사례는 모두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고 있다. 거주기간은 길게는 미국에 15년 산 경우에서부터 짧게는 미국에 온지 석 달 된 경우까지 포함되어 있다. 열 세 사례 중 열 사례는 미국에 입국해서 면접 당시까지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 사례는 미국 뉴질랜드 그리고 영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한 후 한국에 전 가족이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왔다.

전업주부로만 산 경우가 오효영 씨 김순영 씨 천수지 씨 신수정 씨 이순선 씨 임재인 씨 오현미 씨로서 모두 일곱 명으로 가장 우세하다. 그 외 유니스 씨는 여러 가지 일을 간헐적으로 해 온 경우이며, 고가영 씨는 보험모집인을 하다가 남편과 함께 사업을 했고, 김진 씨와 김희남 씨는 시간강사를 하였다. 김노마 씨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며, 유연선 씨는 영국으로 가기 전까지 간호사였다. 그런가 하면, 신분유지를 위해 미국에 와서 일한 경우도 있는데, 김순영 씨는 커피숍을 운영하였고, 임재인 씨는 경리일을 했다.

III.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

이 장에서는 연구문제의 답으로 첫째, 기러기엄마가 된 과정을 살펴보고, 둘째, 제보자들이 그 과정을 회상할 때 드러난 중요한 주제들이 무엇인가 그리고 셋째,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들어난 당사자들의 주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자.

1.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의 다양성

기러기엄마들에 대한 탐색을 진행할수록 몇 가지 유형을 발견할 수 있다. 그 유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미국에 체류한 후 아이와 함께 귀국하는 ‘정기 체류형’ 기러기엄마, 그리

고 면접기간이 포함된 지속적 체류기간 이외에 외국에 체류하다가 귀국하지만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미국으로 건너온 '귀국 후 재출국형' 기러기엄마, 그리고 '아이와 함께 이민의 과정으로 접어든' 기러기엄마,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기러기엄마가 된 경우로 모두 네 유형이다. 각 제보자들은 역동적인 변화의 과정에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유형에 국한되지 않는 중복적인 특성도 보이지만, 면접당시 드러난 가장 두드러진 특성을 따라 대표적인 유형에 포함하여 기러기엄마가 된 과정을 소개하도록 하겠다.

1) 정기 체류형 기러기엄마

정기체류형 기러기엄마는 짧으면 1년에서 길면 5년을 기약하고 기러기엄마가 되었는데, 한국에 있는 자신의 직업으로 복귀해야 하거나, 남편이 정한 기한동안만 지지를 약속한 경우, 혹은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최소한의 기간 동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복귀해야하는 경우이다.

먼저, 김진 씨는 예술대학의 시간강사로 개인레슨으로 상당한 수입을 가질 수 있는 미국 대학 박사학위소지자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 아이를 데리고 유학경험이 있는 도시로 1년 기한으로 와 있다.

또한 김노마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서 1년 유학 휴직을 신청하고 어학 연수를 왔다. 사전에 2년 동안 계획을 세워 '망설임 없이' 왔으며, 유치원에 다니는 딸 아이와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데리고 왔다. 영어를 잘 하는 경쟁력 있는 교사가 되고 아이도 영어를 배우기에 적당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거기에 더하여 여행을 통한 견문 넓히기가 가능해 '일석삼조를 노리고 있다.'

이와 달리 장기기간이지만 역시 정기체류인 두 기러기엄마를 보자. 천수지 씨는 '아이 셋

을 낳고 나니 어차피 나의 시간은 없다'고 판단하고, '아이들의 인생초기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자'하고, '한국에서 영어 몰라 평생 고생할 것'을 생각하고 또 천수지 씨 못지않게 영어실력의 중요성을 절감한 남편의 5년간 지원하겠다는 약속에 힘입어 한의대 입학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면서 미국에 왔다. 처음에는 한의대를 다녀볼 생각이 있었으나, 조금 다녀보고 실망해서 어학원에 다니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천수지 씨는 예정된 마지막 해인 올해 아이들에게 귀국하기 위한 한국학교 공부를 인터넷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시키고 있다.

김희남 씨는 남편과 더불어 미국유학경험이 있다. 이 때 두 아이를 낳았는데, 시민권을 가진 큰 아이가 미국에서 살고 싶어 해서, 김희남씨는 관광 비자를 얻어 딸을 한 학년 낮추어 미국 고등학교에 입학시켰다. 4년 후 큰 딸이 대학에 가면, 둘째 딸과 함께 귀국할 예정이고 매 6개월마다 관광 비자를 갱신하기 위해 귀국해야 한다.

정기 체류형에 속한 기러기엄마들은 귀국 후 장래에 대한 맵을 가지고 있다. 1년간 체류한 김진 씨와 김노마 씨는 한국에서 좋다는 국제중학교나 외국어고등학교를 위시해서 명망 있는 OO 학원에 자녀를 보내 영어실력을 유지해가면서 학교성적을 높이는 방안을 가지고 있다. 천수지 씨와 김희남 씨는 귀국하게 되면 미국에서 4년 이상 체류한 자녀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데, 이 경우 외국어고등학교로 전학하거나 외국어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특혜가 있다고 생각하며 그러한 경로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 유형이 가장 전략적 자세를 취하며 끊임없이 입시와 관련된 한국교육실정과 학원정보를 탐색한다.

2) 귀국 후 재출국형 기러기엄마

제보자들 가운데 세 사람은 가족과 함께

이미 외국에 거주한 경험이 있고, 한국에 살기 위해 귀국했으나 다시 한국을 떠난 경우이다. 유연선 씨는 유럽의 영어권 국가에서 3년간 기러기가족으로 거주하고 나서 서울의 강남지역으로 귀국하였다. 남편이 사업과 관련해서 유학을 계획하고 먼저 그 나라에 가 있도록 했는데, 이후 사정이 바뀌고 남편은 미국 쪽에 사업을 구상했다. 남편이 그 나라로 올 것을 기대하던 유연선 씨는 귀국하지만, 그 후 자녀들은 한국학교에서 낮은 성적을 얻었다. 유연선 씨는 '이대로라면 자녀들의 좋은 대학진학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자녀들은 외국에서의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교육 경험 때문에 강남에서의 경쟁적인 학교분위기와 학원분위기를 못 견뎠다. 글로벌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는 남편의 일터가 마련되자 유연선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뉴욕으로 왔다. 유연선 씨는 5년 동안 합법적인 남편의 사업 비자로 인해 신분유지에는 문제가 없다.

그런가 하면 오효영 씨는 남편이 미국 동부지역에 한국회사의 주재원으로 와서 두 아이를 출산하고 10년간 살다가 귀국해서 3년 정도 살았다. 그 후 남편이 미국의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서 다시 미국으로 왔으나, 1년 후 다시 귀국 발령이 났다. 그러나 다시 자녀들을 한국으로 데리고 갈 경우 언어나 교육에서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남편만 떠나고 오효영 씨는 기러기엄마가 되었으나, 남편은 한국에서 '그토록 충성하던 회사로부터 조기퇴직을 당하고' 한국에서 일거리를 찾느라 가족이 합하지 못 하고 있다. 오효영 씨의 가족은 남편의 직업에 의해 어느 가족보다도 크게 그 운명이 좌우된 경우로 기러기가족은 보다 강제적 선택이 되었다. 오효영 씨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한 편, 신수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데리고 오세아니아 주의 어떤 국가에서 3년 거주하고 한 달 정도 한국에 가 있다가 바로 미국으로 왔다. 외아들에게 외국에 가서 영어를 가르쳐볼까 하는 막연한 생각은 아이가 유치원에 다닐 때부터 해 왔지만, 외국으로 간 직접적인 이유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였다. 서울 근교에서 땅 부자인 시댁의 유일한 일손으로서 신수정 씨는 제사와 명절 그리고 암 투병하다 사망한 시어머니의 뒷바라지 등으로 이미 시댁 일을 돌보는데 지칠 대로 지쳐있었고, 그래서 외국행을 택했다. 그러나 3년 후 귀국을 고려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으나, 시댁에서 신수정 씨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어 있었고 시아버지를 '잡음 없이' 잘 보살피려는 남편은 신수정 씨가 미국으로 가는 것을 도왔다. 신수정 씨는 신분유지를 위해 주 4일동안 어학원에 다녀야 한다.

귀국 후 재 출국 형 기러기엄마들은 외국에서 받은 교육 그리고 그로 인해 변화된 자녀들과 더불어 한국적 교육현실에 적응하지 못했거나,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곳으로 미국을 선택했다고 하겠다. 이들의 경우에는 모두 자녀들을 미국에서 대학을 보낼 계획이다. 또한 신수정 씨의 경우에는 자녀교육보다 한국의 가부장적 확대가족의 틀에 재적용하기를 거부했다고 할 수 있고, 자신이 바라는 부부중심의 핵가족에 대한 이상을 실현하기 어려워 기러기엄마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족 모두 한국에서나 미국에서나 온 가족이 합할 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다.

3) 이민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기러기엄마

한국교육에 대해 총체적으로 가장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제보자들이 이민과 과정을 밟아가는 기러기엄마들이었다. 유니스 씨는 '한국교육이 마음에 안 들어' 외국 이민에 대

해 5년간 생각해 왔다. 말레이시아,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을 모두 고려하다가 결국 미국을 선택했다. 시누이가 사는 LA지역에 좋은 학교를 골라 아예 미국에서 살 생각을 하고 왔다. 그러나 '자리 잡지 못 하면 되돌아가려고' 아이들 학교에는 휴학계를 제출하고 처음에 관광비자로 들어왔다가 취업비자로 변경하였다. 유니스 씨는 '미국주류사회에 끼려면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임재인 씨는 애가 중 1때 학원 다니는 것에 지쳐서 한숨을 쉬고 시들어 가는 것을 보고, '한정된 부모시기에 최선을 다하자'고 결심한 후 이민으로 살고 있는 동생 집으로 딸 둘을 데리고 왔다. 임재인 씨는 오기 전부터 미국입국 후 취업비자신청을 위해 아는 분과 접촉했고 일단 관광비자로 왔다. 취업 비자를 가지고 2년간 취업활동한 후 영주권을 가지고 있다. 이 두 체보자들은 모두 자녀교육의 이름으로 '사이좋은 부부관계를 회생하고 여기에 와 있다'고 한다. 유니스 씨 남편도 이곳으로 옮길 구상을 해 가고 있고, 임재인 씨는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향후 두 나라를 오갈 예정이지만 영구적으로 귀국할 의향은 없으며 임재인 씨가 이곳에서 '세탁소 같은 사업'을 해 볼까 구상중이다.

4) '의도하지 않은' 기러기엄마

앞의 세 유형의 기러기엄마는 한국을 떠나 오기 전에 가족이 합의했건 아니면 당사자가 혼자서 했건 기러기가족으로서의 삶을 구상했다. 그러나 자녀만 보내는 조기유학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다가 자녀를 더 잘 돌보기 위해 갑작스럽게 기러기엄마가 된 경우와 남편이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수 없어서 혼자 잔류한 경우 등은 의도하지 않는 기러기가

족이라고 할 수 있다. 오현미 씨는 미국 사립 고등학교에 조기 유학 와서 홈스테이 하는 딸을 돌려보려 왔다. 홈스테이 가정에서는 '자녀의 건강이나 기분에 따른 식사준비'는 해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통상적으로 홈스테이 주인이 보호자(guardian)역할까지 해주지만, 교과목별 아이의 성적 그리고 그에 맞게 튜터-개인교사 혹은 가정교사-를 구해주거나 학원에 데려다 주는 일 등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진학을 바로 앞에 둔 자녀를 1년간 돌봐주기로 하고 남아 있는 경우이다.

이순선 씨는 남편이 미국에서 유학할 당시, 첫째 아이인 딸을 출산하였다. 미술에 재능을 보인 딸을 미국에 사는 딸의 선생님 집에 홈스테이 시키면서 조기유학을 보냈다. 한국에서 입시위주의 미술교육은 아이에게나 부모에게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순선 씨는 전화로 아이의 홈스테이에 대한 불만을 들어오다가, 아이가 전공할 미술을 핑계 삼아 뉴욕으로 그리고 조카가 묵고 있던 그 홈스테이로 옮겨주었다. 그러다 3년 만에 둘째 아이까지 같은 홈스테이에 맡겨 조기유학을 시키려고 방문해 보니 홈스테이가정에서 아이를 방치한 흔적을 많이 발견하고⁶⁾ 남아서 돌봐주기로 했다. 오현미 씨와 이순선 씨는 자녀들이 함께 홈스테이하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한국에서부터 서로 알게 되었다. 미국 방문 전에는 두 사람이 교대로 아이들을 돌봐주고 창의적인 약속을 했으나, 직접 와서 보고는 아이들을 곁에서 돌봐야겠다고 결심했다. 이순선 씨는 두 달 만에 홈스테이가정을 떠나 와서 집을 얻고 남편과 의논하여 기러기엄마로 살게 되었다.

고가영 씨는 중국 광주에 근거지를 두고 중국과 한국 간 무역을 하는 남편이 사업을

6) 학교심리상담교사와 면담한 결과, 아이가 가디언으로부터 방치 또는 학대를 경험했다는 이야기까지 들게 되었다고 한다.

한지 오래되어, 이미 모자 가정에 적응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며 산지 5년 정도 되었을 때이다. 남편은 아들을 ‘한국이라는 한계’, ‘엄마라는 한계’에서 벗어나게 해주자고 했다. 고가영 씨는 대학생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처음에는 반대하고 1년을 끌었지만, 남편이 ‘남자이니깐 해 낼 수 있다’고 강하게 권유했다. 남편은 중국 측에서 그리고 고가영 씨는 한국 측에서 함께 동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기숙사가 있는 사립학교에 보내고자 계획하였다. 그러나 아이를 보내기 3주전에 “아무래도 마음이 좀 놓이지 않는다. 일단은 따라가서 아이가 안정되는 걸 보고 좀 오는 걸로 하자.....그러면서 갑자기 따라오게 되었어요. 저는 여행비자로”라고 말한다. 사춘기에 접어 든 자녀가 낯선 땅에 와서 역량을 넘는 고통을 받게 되면 술 담배 마약을 한다던지 하는 것이 두려워 ‘상당한 수입을 올리던 일’을 갑자기 그만두고 따라 왔다. 고가영 씨는 일을 통해 남편과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녀의 교육과 보호를 위해 갑작스러운 결정을 했다.

김순영 씨는 ‘원거리에서 사업’을 하던 남편이 사업이 침체될 때 유학경험이 있던 미국에 와서 아이들과 함께 한 2-3년 살아보고자 왔다. 미국에 와 보고 싶어 하던 시어머니가 적극 후원했다. 그러나 2년간 남편과 같이 살았지만, 남편이 귀국해서 사업을 정리하고 돌아오려다 비자발급이 거절되어 미국으로 오지 못하고 아이들은 귀국을 겁내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의도하지 않게 4년째 떨어져 살고 있다. 김노마 씨는 신분유지를 위해 사업 비자를 신청하고자 적절한 일로 커피숍을 골

라 미 서부 해안에서 운영하였다.

의도하지 않게 기러기엄마가 된 경우, 다른 부분에서 재조정이 필요하다. 이순선 씨의 남편은 미국 쪽으로 일터를 옮길 계획이며, 김순영 씨는 그 사이에 돌아가서 적응할 수 없이 커버린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의 과정을 밟아야 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미국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 김순영 씨는 “기러기가족 합한 거 봤어요?”라고 반문한다. 앞에서 귀국 후 재 출국 형 기러기엄마로 소개한 오효영 씨도 이 의도하지 않게 기러기엄마가 된 유형에 속한다. 오효영 씨는 갑자기 깨진 분업구도로 인해 불안증과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 이 경우에는 조정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오현미 씨는 1년만 참으면 된다.

여러 가지 경로로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때 이러한 과정은 기러기엄마가 교육을 목적으로 미국행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는지 아니면 결과적으로 자녀의 교육 때문에 미국에 체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자녀와 더불어 귀국을 계획하고 왔는지 아니면 대학을 보낸 후 혼자 귀국할 예정인지 아닌지 혹은 체류기간을 점진적으로 늘려가고 있는지 아닌지 여부, 출국할 때 자녀와 같은 시기에 동반해서 왔는지 아니면 자녀가 먼저 오고 추후에 엄마가 왔는지 여부에 따라 달랐다.

기러기가족으로 살 것을 결정하는데 부모의 유학경험이나 자녀의 시민권 등은 촉진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가정의 경제력은 기러기가족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자원이다. 그러나 정기 체류 형에서 소개된 김노마 씨처럼 ‘오래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단기에 집중 소비’하면서까지 오는 경우도 있

7) 그렇다고 이 가정이 이민의 과정으로 접어든 것은 아니다. 이 가정은 다국적기업과 합병한 한국기업에 근무한다는 특성을 활용해 예기치 않는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남편이 기러기가족 쪽으로 일단 오는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가고 있는 것이다.

8) 남편을 동반한 여행 두 번 그리고 한국에서는 ‘비싸서 못 사는 물건들, 사고 싶었던 물건들을 귀국 준비 때 구

다. “우리 같은 회사원-남편을 말함-도 오는 시대가 되었다니까요”라는 김노마 씨의 말은 기러기가족형태의 확산과 유행이 점차 상대적으로 하위인 계층에게까지 미치는 파급효과인 추종효과를 보여준다.

2. '기러기엄마 되기' 과정에서 드러난 주제들

기러기엄마들이 기러기엄마가 된 과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언급한 주제들을 분석하였다. 그 주제들은 바로 ‘넓은 세상’, ‘자유로운 세상’으로서의 미국을 떠난 한국과 대비한 것이었으며, 영어실력 향상을 위하여 혹은 미국에서 대학에 가기 위하여 언제 미국에 와야 하는가 또 돌아간다면 언제 돌아가는 것이 좋은가라는 소위 ‘적기’에 관한 것이었다. 또한 ‘왜 나는 이곳을 택했는가, 왜 이 곳에 정착하고 있는가’라는 정착지의 선택은 일상적 삶의 터전을 구성하면서 출국과 관련된 목적 자원 등을 간접적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주제였으며, ‘남편의 혼자살기 및 남편과의 지속적 관계 및 시댁과의 갈등’도 빠짐없는 중심주제였다. 이 절에서는 이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제보자들의 생각을 분석해보자.

1) ‘넓은 세상’ ‘자유로운 세상’

제보자들의 미국행에는 한국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미국교육 혹은 미국에 대한 환상이 작용한다. 이민에 대한 미국 측의 연구결과, 미국이민자들 대부분은 보다 좋은 교육을 목표로 삼는다고 한다(Nancy Ropez, 2003). 그런데 제보자들의 이야기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피부로 느끼는 구체적인 것임에 비해 미국교육

혹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실험의 초기에 가지는 가설과도 같았다.

한국교육의 부정적인 측면은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교육 때문에 자녀들의 소질을 개발하기 어렵다든지, 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면서 아이가 생기를 잃어간단든지, 다른 엄마들의 치맛바람 그리고 엄마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없음, 혹은 그에 대한 거부감으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아이를 기를 경우 들어갈 대학이 뻔하다 라거나 아이도 부모도 행복하지 않다고 언급한다.

제보자 중 몇 명은 미국을 프런티어정신, 청교도 정신 등 다소 식상한 표현으로 칭송하고 ‘민도도 높고 그렇지 않나요?’라며 연구자의 동의까지 얻고자 하였다. 미국사회를 교육을 통하여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나라로 이해하였다. 아메리칸 드림의 선전효과가 여전히 우리 한국의 기러기가족 의사결정에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유학경험이 있는 가족들은 ‘세 시만 되면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와 자유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한국에서 내내 비교했다’고 한다. 이른 귀가를 자유로운 세상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기러기가족이 과연 넓은 세상, 자유로운 세상으로 왔는가하는 것은 중요한 또 하나의 연구문제라고 생각된다. 엘에이근교와 뉴욕과 같은 한인밀집지역에서는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인공동체로 기러기가족 자녀들의 친구관계가 국한되는 것을 보았다. 초기 정착 시 한국인을 발판(Spring board)로 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정 시기가 지나고 보면 몸은 미국에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한국인들 사이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영어를 배워야 하고 또 미국문화를 배워야 하는데.....그러니 한국 애들과 만나지 마라, 만나도 한국

입하는 것’을 포함해서 1억원을 소비할 것이라고 한다. 1억원은 이 가정이 2년 이상 살 예산이라고 한다.

말 하지 마라” 이런 현상을 자주 목격하였다. 김노마 씨는 마침내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을 찾아 처음 정착한 어스틴을 떠났다. 그러나 곧 바로 아파트 임대엔 필요한 보증인을 구하기 위해 다시 한국인을 찾는다. 또한 미국에서 유학한 경험이 있는 이순선 씨나 김진 씨 그리고 김희남 씨는 미국 현지인과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 현지인과의 관계는 일과 학부모회 혹은 종교단체를 통해 접근이 가능하지만, 일도 없고 언어장벽도 커서 어느 기러기엄마도 넓은 세상을 보게 할 통로가 될 현지인과의 접촉이 없었다.

엘에이지역과 뉴욕의 학부모들은 학교이외에 사교육현장은 모두 한국인과 관련되어 있었는데, 어머니들의 관계망이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테니스도 한국인에게 영어로 말하면서 배우고 한국인이 운영하는 학원에서 영어로 토론하는 것이 보편적 현상이었다. 한국인 혹은 한국이민사회가 기러기가족의 자녀들이 미국학교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자원이 되어주지만, 미국의 문화를 수렴할 기회를 차단한다면 기러기가족의 자녀들은 미국 사회로 통합되지 못하고 분리될 것이다.

신수정 씨나 유연선 씨는 특히 고등학교 자녀의 친구문제에 민감하다. 정착의 한 징후로 부모들은 자녀들이 친구를 가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백인 아이들이 주류인 학교에서 이들 자녀들의 친구는 모두 한국인뿐이다. 그 것도 한국어를 하는 2세대뿐이라고 한다. 이들의 결론이다. “넓은 세상이란 없다.” 또한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의존해야 하는 아이들은 일상생활과

관계망에 대한 어머니의 완벽한 통제아래 있다. 어머니들은 이러한 통제가 대학진학에 보다 유리한 준비를 가능하게 하고, 대학을 통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이 기러기엄마들의 잠재적 희망일 것이다.

2) ‘현지 영어교육을 위한 미국행의 ‘적기’ 혹은 ‘적절한 체류기간’

기러기엄마들이 언제가 과연 자녀들의 현지 영어교육 혹은 미국에서의 조기유학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기라고 생각하고 떠나오는가? 기러기가족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적기’란 하나의 이념형으로 작용한다. 기러기엄마들은 모두 적기에 대해 이야기 한다. 이러한 적기 논의는 언제 와야 하는가, 얼마나 있어야 하는가이다.

언제 와야 하는가라는 물음은 구체적으로는 ‘영어를 습득할 학습능력이 어느 나이가 가장 좋은가’ ‘현지 미국 아이들이 인종차별주의 관념이 심어지지 않아 아이들을 노는데 잘 끼워줄 것인가’하는 것이다. 기러기엄마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답을 보자.

“유치원이나 1학년처럼 어릴 때 오면 여기 아이들이 잘 끼워주고, 생일잔치에 초대도 받고 하지만, 애들이 너무 철이 없어서 백인이 되고 싶어 한다. 한국인인 것을 부끄러워한다. 그러나 또 너무 늦게 오면 이중 언어를 배울 적절한 때를 놓치게 되고, 여기 아이들이 끼워주지 않는다.”

대략 기러기엄마들은 초등학교 3, 4학년을 적기라고 평가¹⁰⁾한다. 한 편 5학년 2학기에 와서 6학년을 보낸 김진 씨의 경우-여기 6학

9) 이లే테면 김희남 씨는 조기유학을 데리고 올 자녀의 치과치료에 문제가 생겨 소송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2년 이상 지체하였다. 결국 김희남 씨는 학년을 하나 낮추어 딸을 고등학교 1학년에 다니게 하였다.

10) 그러나 한국에서 조기영어교육으로 준비되지 않고 오는 경우, 4학년 교과내용이 갑자기 어려워지므로 언어문제와 학습난이도가 겹쳐(어스틴 소재 E 초등학교 교장과 상담교사의 견해) 아이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고 한다.

년은 중학교 1학년임-, 중학교에서는 교과목 별로 학급이 달라져 “저 아이는 한국에서 온 영어 못 하는 아이이니까 언제나 봐주자 혹은 빼주자” 하는 낙인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니, 중학교1학년에 오는 것도 좋겠다하는 의견이다.

적기란 한 편으로는 돌아가서 적응할 학년을 고려한 것이기도 했다. “중학교 때 돌아가면 벌써 경쟁에서 쳐진다. 특히 수학과목이 미국은 너무 쉽다.”라고 한다. 또한 기러기엄마들은 “1년은 너무 짧고, 3년 있으면 영어가 완벽해지지만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 2년만 있어도 애들이 여기 학교를 너무 좋아해서 돌아가지 않으려고 한다.”고 알려준다. 영어만 늘지, 잃는 것이 더 많다는 계산도 한다. 만약 더 길어질 경우 되돌아 가 한국에서 인정받을 특혜를 고려한다. 정기체류로 영어교육을 시킨 후에 귀국하고자 하는 엄마들은 체류기간자체의 인정, 그리고 토플성적, 귀국 후 적응가능성을 두고 몇 년 체류할 것인가를 저울질 한다. 대략 3-4학년때 와서 2년 정도 있다가 귀국하는 것이 정기 체류형 기러기엄마의 결론이다.

3) 정착지선택

기러기엄마들 모두 살고 있는 지역의 선택에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이비리그에 가기 쉽다’고 알려진 세계적인 도시 뉴욕은 ‘기왕이면 뉴욕’이 되었고, 제보자를 선정한 롱아일랜드의 제리코학군은 기러기엄마들이 말하기를 미국 내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곳에서 적당히만 해도 주립대학교는 간다’는 것이 기러기엄마들을 안심하게 한다. 제보자들의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는 한국인이 10%정도를 차지한다

고 한다. 한국인이 많이 가 있는 ‘날씨 좋은’ 캘리포니아도 좋은 학군에 기러기가족이 몰려드는 곳이다. 이 곳 역시 좋은 학군이란 결국 대륙의 끝에 있는 아이비리그 진학률이다. T고등학교는 명문으로 이름이 나자, 한국학생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한국인 밀집지역에는 미국중고등학교 교육에 적응하고 대학진학을 위한 수험준비 용 사설학원이 발달되어 있으며 대부분은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한국인 원장이 경영하는 곳이라고 한다.

뉴욕과 캘리포니아를 선택한 기러기엄마들은 심리적 안정감을 얻거나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는 친지를 믿고 왔다. 임재인 씨의 경우에는 유학 와서 결혼하고 정착한 동생네 가족과 오래 함께 살면서 언어문제를 해결했고, 신수정 씨는 친구를 따라 이곳으로 와서 친구가 아는 사람에게 정보를 얻어 정착했다. 유니스 씨도 ‘시누이를 믿고 왔다’. ‘영어도 못하는 시누이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금에 와서는 평가하고 있지만, 기러기엄마로 나설 때 이들 친지들이 중요한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이러한 친지는 종교를 통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국제적인 교류가 있는 종교에 속한 천수지 씨와 고가영 씨는 주택임대외 학교선택에 있어서 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 모든 정체성의 수렴지인 신앙생활자체를 일관성 있게 지속하게 해 주었다. 그런가 하면 김노마 씨나 유연선 씨 그리고 임재인 씨는 미국 현지에 와서 한인 교회를 중요한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다. 대도시의 한인 밀집지역에서는 교회(11)가 바로 기러기엄마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일련의 자원과 관계망을 부여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11) 한국에서도 전업주부들은 종교 활동을 통해 제한된 사회활동에서 벗어나 개인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남편과 자녀에게 가치부분에서 통합력을 발휘할 수단을 가졌다(김선미, 2004 a).

어스틴은 한국에서 인지할 정도로 유명한 학군보다는 이 도시와의 인연 혹은 중소도시라는 이점이 작용한다. 김희남 씨의 경우에는 시숙부가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거리 즉 두 시간 걸리는 달라스에 살고 있다는 것이 어스틴을 선택한 이유이다. 그러나 뉴욕이나 캘리포니아의 높은 물가를 감당할 수 없는 김희남 씨의 가족으로서는 기델 곳이 가까이에 있는 중소도시를 선택했다. 또 ‘유학경험이 있어 유일하게 친숙한 이 도시’로 온 김진 씨, 그리고 ‘동생이 다니는 학교의 학생아파트로 밀고 들어온’ 김노마 씨, 자신이 속한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유일한 이유로 어스틴을 선택한 천수지 씨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결국 김노마 씨는 어학원에서 만난 다른 기러기엄마와 더불어 ‘이 한적한 곳-어스틴-을 떠나 뉴욕으로 갈까 캘리포니아로 갈까’ 고민하다가 6개월만에 캘리포니아로 떠났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은 도시도 일단 선택한 후에는 역시 학군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 김노마 씨의 경우에는 학생아파트의 학군이 가난한 유학생자녀들이 많은 좋지 않은 학군- ‘무료급식 학생 비율이 높고, 교사의 동기화가 낮음’-이라는 풍문에, 3개월 만에 학교를 옮기려고 이사까지 하였다. 김노마 씨가 이사한 지역은 한국인 밀집지역으로 스물 한 두 명 있는 초등학교 학급에 벌써 한국아이가 네 명 정도가 넘었다. ‘다양성을 위해 한국학생이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교장의 말을 전하는 학부모도 보았다. 좋은 곳을 찾아 최소한의 기간에 최대의 효과를 보려는 김노마 씨는 다시 이 학교를 2개월 만에 떠나게 된다. 유학경험이 있는 김진 씨는 ‘한국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최고의 학군에 속한 초등학교에 아이를 입학시켰다. 이어 온 김희남 씨는 한국인 부동산업자의 소개로 ‘최고의 학군에 있는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아이들을 입학시켰다.

4) ‘우리 남편, 애 아빠’의 혼자살기 그리고 시댁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남편과의 관계라는 주제는 남편과의 동역(同役, co-work), 남편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염려, 그리고 시댁과의 갈등으로 간추려진다. 먼저, 남편과의 동역은 기러기가족형태로 살겠다고 남편이 결정하고 아내가 현지에서 대행하는 경우에서부터, 소극적으로는 아내가 주도하고 남편이 지지하는 경우까지 다양하지만 기러기가족의 물질적 기초는 한국에 남은 남편에게서 나온다. 제보자들이 월 2500불에서 9000불까지 지출하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한국에 남아 경제적 지지를 하는 것은 남편의 가장 큰 몫이다. 그리고 신분획득을 위한 서류작업에도 남편의 동역은 관찰된다.

일단 미국으로 건너 온 후 남편과의 관계는 친밀감의 유지에 관한 이야기로 무게가 이동한다. 그러나 오래된 제보자들은 ‘미운 정 쌓을 시간이 없어진다. 이렇게 사니 투정을 못 부린다. 모든 이야기의 과정이 생략된다. 싱거운 일상 스케줄과 안부 묻기가 전부이다. 관계의 깊이가 결여된다. 떨어져 있으니까 멀어진다. 각자 사정을 속속들이 모르니까 대화가 단절되고 사소한 이야기는 안하게 된다’라고 한다. 경제적 지지 이외에 남편이 기러기가족에게서 할 일은 점점 소멸해간다. 남편의 생활에서 주로 식생활이 거론되지만, 일중독 성향이 있어서 헤어지기 전에도 집에서 식사를 거의 하지 않았다거나, 대기업중역이어서 외식이 잦아 혼자 남아도 식사를 직접 해서 먹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경우도 있고, 함께 살 때에도 너무 깔끔하고 음식도 잘 해 먹었기 때문에 아내가 없어도 잘 지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남편과 별거를 결정할 때 스스로 혹은 옆에서 물어서, 성적 외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다고 한다. 기러기가족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에 대해 고려했던 제보자들은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반면, 남편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져 있거나 절대 신뢰한다고 믿는 경우에는 언급이 없었다. 제보자들의 다양한 답을 살펴보자. '우리 부부는 절대 신뢰한다' '그 사람 성격이나 신앙으로 보아 그럴 사람이 아니다' '70%정도 신뢰한다' '그래도(성적 외도를 해도) 꾸준한 관계만 아니라면, 어쩔 수 없다. 외롭고 힘들 텐데 저만 모르면 되요' '여전히 좋지 않은 상상을 하면 견딜 수 없다. 아이들 방학 때 만나거나 미국을 방문해서 함께 지내게 될 때 애정표현이 없는 남편을 의심하게 된다'. 그런가 하면, 외도하지 않게 갑자기 기러기가족이 되어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김순영 씨 경우에는 남편이 아내에 대해 의처증이 생겼다. 남편이 올 수 없는 형편이며 아내가 커피숍을 운영한다는 이유로 남편이 시어머니와 함께 집을 쳤더니 아내가 외도한다고 했다고 한다. 현재로서는 전화도 거의 끊어진 상태이다.

시댁과의 갈등은 심하면 기러기엄마가 된 직접적 계기로 혹은 귀국을 불가능하게 만든 원인으로 이야기 된다. 신수정 씨는 '시아버지와 외아들인 남편과의 집착'때문에 부부중심 핵가족이 유지되기 어렵고, 자신이 시댁에서 며느리역할로 함입(陷入)의 공포를 느껴온 지 오래되어, 자녀유학의 이름으로 표류하는 삶이 되어 버렸다. 유연선 씨는 경제적으로 성공한 남편이 문제 많은 시누이들이 가족을 마음 놓고 아내의 신경을 거스르지 않고 또 자신도 아내의 잔소리로 괴로움당하지 않으면서- 보살피기 위해 아내와 자녀들을 외국으로 보낸 측면도 있다고 한다. 김순영 씨는 "시아버지와 힘들어 미국 오게 됐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의 며느리 사랑을 노골적으로 질투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미국에 오고 싶어서

보낸 측면도 있다. 엄청난 시집살이를 했다. 지금도 귀국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한다.

그러나 자녀만 보내기로 결정을 했던 이순선 씨나 오현미 씨는 시댁과의 교류가 일상생활이 되어 있었는데, 불가피하게 기러기엄마로 살다보니 시댁에 대해 연민을 느끼고 그리워하는 입장이다. 가깝거나 멀거나 시댁과 관계는 제보자들에게 무게 있는 이슈이다. 시댁의 시부모님이 타계하여 시댁에 대해 아무런 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다. 천수지 씨나 임재인 씨의 경우가 그렇다.

3. 기러기엄마로서 나는 무엇을 하였고 어떻게 느꼈는가?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당사자는 어떤 행위를 했으며 그 과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기러기가족의 초기정착과정에 필요한 부분을 남편이 간여해서 해결한 드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기러기엄마들은 현장에서 구체적인 일을 처리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도전에 직면한다. 자녀교육을 위해 기러기엄마생활을 선택했지만 그 속에서 일상생활을 만들어내고 그러한 삶이 개인에게 주는 의미를 해석해낸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기러기아빠들이 돈을 대주는 일을 전담한다면, 기러기엄마들이 공통되게 하고 있는 일은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건너오기 혹은 미국에 남기, 미국체류를 가능하게 할 신분유지활동, 식사준비와 차 태워다주기 시장보기 등 일상적 가사노동, 학습 지지를 위한 학원정보수집 그리고 튜터 구하기,(학교)카운슬러와 면담하기 및 대학진학을 위한 정보수집이다. 이제 맥락 가운데서 제보자들이 어떤 체험을 하고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 제보자별로 살펴보자.

<유학생출신의 시간강사 두 엄마 ;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

김진 씨는 자녀의 조기유학을 주도해 온 남편의 일정이 변경되자 남편을 대신해서 신분을 획득하고 혼자라도 와서 아이를 돌보기 위해 수익성 있는 개인레슨과 겸임교수자리를 정리하고 기러기엄마가 되었다. 초기적응과정에서 기후적응이 어려워 알레르기로 고생하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고 회의하였으나, '넓은 세상'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위한 가족의 대의에 합의하고 '고통스러운 한 해'를 견뎌내기로 하였다. 혼자 와야 하기 때문에 유학한 적이 있는 친숙한 도시를 선택하였다. 초기정착을 위해 남편이 이주일 동안 동행해주었다. 차 구입, 아파트 임대, 아이 입학, 전기 전화 인터넷 연결, 가구 비치 등 기본적인 것을 갖추는 일을 남편이 했다. 그러나 남편과 함께 왔다가 잔류한 김순영 씨나 오효영 씨를 제외하면 현지에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모든 일은 바로 기러기엄마들의 몫인데, 낯선 땅에서의 이러한 경험을 여러 제보자들은 '맨땅에 헤딩'으로 표현하고 있다.

김희남 씨는 시간강사 성격의 겸임교수라는 '애매한 직장 내 지위(2)'를 버리고 '아이들'과 '신앙'에 집중하기 위해 기러기엄마의 길을 선택했다. 여자로서 김희남 씨의 인생은 출발은 남편과 같이 유학생이었지만, 아이들 둘 낳고 '석사학위만 하고' 귀국해서 남편이 교수로 있는 학교에서 겸임교수로 지내왔다. 교환학생으로 딸이 선발되었지만, 남편이 반대했고, 그 결과 아이만 보내기보다 엄마가 동반하게 되었다. 김희남 씨는 아이들이 좋아 하는 것을 찾아 기쁘게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입시위주의 한국교육을 피해 기러기엄마가 되기로 했다.

<용감한 두 엄마; 저요? 저 겁 없어요. 진짜예요.>

천수지 씨는 '떠나는 것에 대한 동경'이 바로 세 아이에 대한 자신의 시간투자 가치를 최고로 높이는 것에서 촉발된 미국행에서 이루어진다. 비자 획득, 주거지 선택과 아파트 임대 등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모든 과정을 주도한 천수지 씨는 아이 셋과 가방만 가지고 와서 정착한 '나는 겁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나 한 편으로 독단적인 남편의 주식투자 그리고 결과적 실패가 천수지 씨로 하여금 부부관계에서의 좌절을 경험하게 한 것도 떠나기로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천수지 씨는 처음 와서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영어로 된 영화 테이프를 듣게 하고, 자막 받아쓰기를 시키는 등 구체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자녀들이 '한국 애들과 어울려 한국드라마와 같은 어른 문화에 젖는 것을 통제하고자' 캘리포니아에서도 자주 이사했으며, 최근에는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해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로 오기로 하루 만에 결정하고 24시간 거리를 잠을 자지 않고 운전해서 이사했다.

자녀교육을 평소에도 주도하던 김노마 씨는 남동생이 유학중인 곳을 선택하고, 자신의 직업상 요구인 영어연수를 위한 유학휴직을 결정한다. 남동생 이름을 빌어 학생아파트에 아이들과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어학연수보다는 비자유지를 위해 어학원에 다니고, 여행을 위한 남편의 스케줄까지 짜고 있으며, 정해진 시간에 효과적인 영어교육을 위해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알아보고 정보력"을 갖추었다. 김노마 씨는 언제나 이동할 준비가 된 유목민과 같다. 1년 동안 아이 학교를 세 군데 옮기고, 텍사스 주에서 캘리포니아 주로 떠났다. 이 두 사람은 기러기엄마

12) 소속한 학과에서 야간수업과 같은 전임교수들이 회피하는 수업은 겸임교수도 전임이라면서 맡기고, 여름 계절 학기와 같이 수입이 괜찮은 과목을 가르쳐보려고 지원하면 전임이 아니라서 안 된다고 하였었다.

로서 사는 과정자체가 개인적인 취향의 발휘와 성취를 포함한다.

<뚝뚝해졌어요. 홀로서기가 된다니까요.>

유연선 씨는 맨 처음 유럽의 어느 국가로 갔을 때에는 남편이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몸만 가서 살면 되도록 필요한 것들을 완비해 놓았었다. 그러나 이 번 뉴욕 행은 해외에서의 교육경험으로 인해 자유로운 교육체계에 미련을 가지고 있으며, 한 편으로는 한국에서의 경쟁적인 교육체계에 이미 뒤쳐진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여 유연선 씨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도하였다. 학군탐색을 중심으로 해서 주거지를 선택하는 문제, 집을 구하고 차를 구하는 문제,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모든 문제를 유연선 씨가 구체적으로 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유연선 씨는 '외국생활을 뚫어낸 데 대한 자부심'을 획득하였다. 임재인 씨도 아이들의 유학을 위한 취업비자의 유지를 위해 버스를 타고 주 3회 통근을 하며 월 1500불을 벌었다. 그 결과 영주권을 가지게 되었다. 한국에서 건설업체사장인 남편을 두고 넉넉하게 살았으나 이곳에 와서 "동생집 지하의 창문도 없는 방 한 칸에서"사는 것을 감내했다.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 그리고 커서는 남편이 다 해 주다가 여기 와서 정말 많이 뚝뚝해졌지요."

신수정 씨는 학생비자로 어학원에 나가면서 친구와 함께 동반 입국했고, 그 친구가 사는 지역에 거처를 정한다. 신수정 씨는 모자가 생활하고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모든 구체적인 일을 하였다. 한 번도 와보지 않는 남편은 6개월분의 생활비를 한꺼번에 주고, 카드를 주었을 뿐이며 전화통화도 안 한다. 신수정 씨는 부유한 시대의 유산을 계산하고 자

유를 반납하는 삶 대신 이혼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먼저 신수정 씨는 남편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또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의류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였다.

김순영 씨는 사업 비자를 유지하기 위해 커피숍을 운영하다가 몸이 아파 그만 두었다. 지금은 남편이 함께 살면서 세워둔 생활방식을 소극적으로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녀들을 태워다 주는 일이 가장 크다. 김순영 씨는 일을 해보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한다. "일을 하면서 생활시간을 다양하게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다. 노후 생활을 애들에게 기댄다는 생각은 안한다. 파트타임 잡을 꿈꾸고 있다."

<어머니 노릇 먼저...>

오현미 씨와 이순선 씨는 다른 기러기엄마들과 달리 아이를 조기유학보내기로 남편과 합의하고 아이만 보낸 후, 홈스테이의 문제점 때문에 늦게 아이와 살게 된 경우이다. 홈스테이가정의 부족한 점을 매우기 위해 '파출부'처럼 사는 것도 불사하기로 작정하였으나, 이순선 씨는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구해 독립한 상태이고, 관광비자로 왔다가 신분유지를 위해 학생비자로 바꾸고 어학원에 다니고 있으며, 오현미 씨는 실제로 그렇게¹³⁾ 살고 있다. 이 두 경우는 한국중산층의 전형적인 전업주부의 삶을 보여주는데, 아내 며느리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에 개인의 정체성이 몰입되어 있다. 이 세 가지 역할의 균형을 위해 처음에는 기러기엄마를 택하지 않았지만 그들 자녀들에게 모성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다른 역할을 유보하였다.

13) 당사자는 그러한 표현을 쓰지 않았으나, 오현미 씨를 아는 사람들은 '파출부처럼 살고 있다'라고 전한다.

<깨어진 분업구조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

오효영 씨(8)는 이들과는 반대로 갑자기 많은 일을 혼자 처리하게 되자 부담감에 우울증과 불안증이 생긴 경우이다.

“아빠가 떠난다고 딱 결정이 되고부터 남을 못 잡던 게 저는 예전에 우표 하나도 제 손으로 붙여본 적이 없어요. 모든 관리며 이런 거를 저는 오히려 용돈을 받아서 쓰고 모든 자산관리를 애 아빠가 하는 꼼꼼한 타입이어서 다 알아서 잘하니까 그래서 저는 빌(bill 청구서)도 어떻게 보내는 지도 모르고 뭐 하나 해 본 게 없어요. 집안에서 살림만 한 거예요.....모든 걸 애 아빠가 다 알아서 했으니까.....주위에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공포감과 불안감이 가중되는 거 같아요.

기러기가족의 분업구조가 재조정되면서 한 편으로는 의존적이던 여성을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 편으로 과중한 부담이 기러기엄마에게 몰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IV. 결론

이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상이한 과정을 거쳐 기러기엄마가 된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그 결과를 정기 체류 형 기러기엄마, 귀국 후 재 출국 형 기러기엄마, 의도하지 않는 기러기엄마, 이민의 과정을 주도한 기러기엄마의 네 가지 유형으로 소개하였다. 이렇게 볼 때, 국내에 알려진 기러기엄마에 대한 전형적인 스테레오타입은 이러한 다양성과 상당한 거리가 있다.

또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에서 한국과 미국 가운데에서 자녀를 기르는 국가를 선택하는 문제, 영어교육 혹은 미국조기유학의 적기가 언제인가 하는 문제, 또 구체적으로 어디에 안착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혼자 남게 될 남편과 관련된 문제들이 중심 주제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행위당사자로서 기러기엄마의 삶의 맥락과 주체적 체험은 무엇인가를 <유학생출신의 시간강사 두 엄마 ; 넓은 세상을 보여주자><용감한 두 엄마; 저요? 저 겁 없어요...진짜예요.><뚝뚝해졌어요. 홀로서기가 된다니까요.> <어머니 노릇 먼저...><깨어진 분업구조 속에서 과중한 부담을 안고>의 제목으로 대표적 제보자의 예를 들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기러기엄마들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얻었다는 결론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타율적이고 의존적이었던가를 반증하기도 하고, 기러기엄마로서의 새 삶이 새로운 불확실성과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여 인간적인 성숙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신분유지의 불안정성이나 언어의 장벽 그리고 한 부모로서 자녀를 돌봐야 한다는 점 등은 여전히 이들에게 남아있는 도전이며 과제이다.

이 논문은 기러기엄마들의 일상생활과 정체성유지문제를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과정에서 먼저 기러기엄마가 되는 과정을 주로 다룬 논문이다. 앞으로는 기러기엄마들은 현지에서 어떤 일상생활을 하며, 그 섬세한 삶의 과정에서 또 어떤 도전에 직면하고 어떻게 분투하는가, 그리고 그러한 일상적 삶의 과정을 어떻게 해석해 내는가, 이러한 모든 측면들은 한국 전업주부 삶과 어떤 관련성을 맺고 있는가, 과연 한국전업주부들이 고려하듯이 기러기엄마로서의 삶이 대안일 수 있는가 하는 중립적인 연구문제들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리 길지 않은 역사를 가진 ‘기러기엄마로 살기’라는 실험은 아직 결론이 없다. 다만 몇 가지 성공사례에 관한 신화가 있을 뿐이다.

이러한 연구문제에 대한 대답은 추후 장기적인 연구와 더불어, 양적인 접근에 의한 연구도 필요로 한다. 또한 기러기가족의 부부를 쌍으로 하는 연구도 절실하다. 기러기엄마들

에게서 이 결정과정에서 겪은 부부간의 불일치나 갈등을 읽어 낼 수 없었다. 거기에는 연구자의 질문기술의 한계도 있겠지만, 당사자들의 은폐 혹은 의식하지 못함 등도 있을 것이다. 또한 기러기엄마의 이야기에서 자녀들은 늘 대상일 뿐이다. 자녀와의 타협과정이나 자녀들이 경험하고 느끼고 해석하는 기러기가족으로서의 삶은 어떠한가도 연구해야 한다. 기러기가족의 삶의 형태는 모든 가족원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부부와 자녀를 포괄하는 연구가 되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 1) 김선미(2004a). “전업주부는 어떻게 정체성을 유지하는가? ; 사회문화적 압력에 대한 저항과 종교활동 그리고 정당화”. 한국생활과학회지 13(5), 723-739.
- 2) 김선미(2004b). “전업주부의 ‘자식 키우기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3(4), 537-553.
- 3) 김성숙(2006). “기러기아빠의 생활 변화와 적응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41-158.
- 4) 김영희, 최명선, 이지향(2005). “뉴질랜드 거주 기러기어머니의 생활 실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3(11), 141-152.
- 5) 김양희, 장은정(2004). “장기 분거가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기러기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2), 1-23.
- 6) 안병철(1996). “조기 유학의 현황과 과제 : 북가주(Northern California) 조기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67-81.
- 7) 앤서니 기든스 저. 권기돈 역(2001).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 8) 이희봉 역(1996). 문화탐구를 위한 참여관찰방법.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 9) 전현옥(2003). “뉴질랜드 조기 유학의 현장”. 교육비평 11, 33-43.
- 10) 조삼섭, 심성옥, 신일기, 이지현(2006). 조기유학 성공과 실패 사례조사 및 학부모 계도를 위한 홍보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보고서.
- 11) 조용환(1999). 질적 연구 연구방법과 사례. 교육과학사.
- 12) 조은(2004). “세계화의 최첨단에 선 한국의 가족 - 신글로벌 모자녀 가족사례 연구”. 경제와 사회. 통권 64, 148-171.
- 13) 조은, 이정옥, 조주현(1996). 근대가족의 변모와 여성문제. 서울대학교 출판부.
- 14) 최양숙(2005). 조기유학·가족 그리고 기러기아빠. 한국학술정보.
- 15) 조은(2006). “오늘의 한국가족 어디로 가고 있나?”. 아산재단 창립 29주년 기념 심포지엄, 1-13.
- 16) 한준상, 기영화, 강양원, 박현숙, 샤론 메리엄(2002). “조기유학생 적응지도에 관한 연구: 조기유학체도의 문제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연구 9(1), 199-220.
- 17) Creswell저 조홍식의 역(2006). 질적 연구의 다섯 가지 전통. 한울출판사.
- 18) Bosma Harke A. and Tobi L.G.Graafsma and Harold D. Grotevant and David J. de Levita(ed)(1994). Identity and Development. London : Sage Publication.
- 19) Nancy Lopez(2003). Hopeful Girls and Trouble Boys ; Race and Gender Disparity in Urban Education. London : Rutledge.
- 20) Spradely J.P.(1980). Participant Observation.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 접수일 : 2007년 10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10월 31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11월 27일